07. ????

이것도 공부니까 알고는 계시고,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. 이거 하시면 망합니다. **100%** 망합니다. "나는 할 수 있다"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. 무조건 망합니다.

망합니다. 망합니다.

? ???? ????

옵션도 앞의 파트에서 설명한 선물과 비슷한 녀석입니다. 이 녀석도 자신이 투자하는 금액 이상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, 반대급부로 어마어마한 빚을 질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옵션이 선물보다 아주 조금 나은 부분은, 이 녀석은 특정 상황에서 손실이 제한적이라는 정도 입니다. 하지만 그것 뿐입니다. 빚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.

??(Option)??

옵션이란 현재 얼마의 값어치를 가지는 상품(기초자산)을 만기시에 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"권리를 계약하는 일(쿠폰을 사고 파는 일)"입니다.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.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

- 기초자산(underlying asset): 그냥 현재시점의 상품을 말합니다. 상품 또는 상품의 가치를 뜻하지요.
- 만기(expiration date): 어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말합니다.
- 행사가격(strike price, exercise price):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의한 가격을 말합니다. 여기서 "행사"는 할인행사의 행사이기도 하지만, 그... "어떤 권한을 행사한다"는 행사입니다.
- 프리미엄: 옵션의 가격을 말합니다.

이 용어를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. 어떤 "기초자산"이 있습니다. 이 기초자산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 어떤 시점(만기 시점)이 되면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,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까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냥 팔면 됩니다.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지요. 그래서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상품을 내 놓습니다.

"이 기초자산의 가치는 현재 100만원이지만 만기가 되면 110만원이 될 것 같으니 만기시 105만원에 이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."

매도자의 이런 권리상품 (옵션)을 발견한 매수자는 고민을 합니다 .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이 권리상품 (옵션)을 사게됩니다 . 이걸 흔히 "콜 옵션 "이라고 하며 "현재 100만원인 자산을 만기시 105만원에 살 권리 "를 사는 것입니다 . 그리고 .... 실제로 만기가 되어 자산의 가격이 105만원보다 비싸게 형성된다면 콜 옵션을 산 매수자는 이 권리를 매도자에게 행사하여 남들이 모두 105만원보다 비싸게 살 때 자신만 싸게 사는 것이지요 .
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.

"이 기초자산의 가치는 현재 100만원이지만 만기가 되면 90만원이 될 것 같으니 만기시 100만원에 이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 ."

무슨 말이냐고요 ? 그러니까 만기시 자산 가치가 시장에서 90만원에 거래될텐데 , 너만 100만원에 팔아치울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. 그러면 또 다시 매수자는 고민을 합니다 .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 권리상품 (옵션)을 사게 됩니다 . 이걸 흔히 "풋 옵션 "이라고 하며 "현재 100만원인 자산을 만기시 100만원에 팔 권리 "를 사는 것입니다 . 풋 옵션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. "남들이 다 시중가격으로 팔 때 나만 비싸게 팔 권리 "입니다 .

??? ??

재미있는 것은 이 옵션 (권리)의 거래에는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필요 합니다 . 매수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름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권리자체에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. 콜 옵션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100만원짜리 자산을 11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니 , 대략 10만원보다 이 권리가 싸다면 이 권리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겠죠 . 반대의 경우인 풋 옵션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100만원짜리 자산을 남들이 90만원에 팔고 있을때 나만 10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니 , 대략 10만원보다 싸다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.

이러한 만기시 자산의 가치와 현재시점의 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옵션의 내재가치 라고 합니다 . 그리고 이 옵션 (권리)은 만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남았을 수록 가격이 어디로 튈 지 모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. 이것을 옵션의 시간가치 라고 하고요 . 음 .. 이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.

두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옵션 (권리)을 산 매수자는 만기시 이 옵션 (계약)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.
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자산을 만기시에 105만원에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산 매수자가 있습니다 . 이 매수자는 만기시 자산의 가치가 105만원보다 비싸질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, 정작 만기가 되고 보니 자산의 가격이 103만원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. 그렇다면 ...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중가인 103만원에 자산을 사는 것이 낫지 굳이 옵션 (권리)를 행사해서 103만원 짜리를 105만원에 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.
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. 현재 100만원짜리 자산을 만기시에 100만원에 팔 수 있는 풋 옵션을 산 매수자가 있습니다 . 그런데 만기시 가격을 보니 자산의 가격이 오히려 올라 103만원이 된 것입니다 . 이 경우 풋 옵션의 매수자는 그냥 103만원에 자산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 굳이 옵션 (권리)를 행사해서 남들 다 103만원에 팔 때 나만 100만원에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.
이처럼 옵션은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.

그렇다면 매수자의 입장은 위와 같은데 매도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?
매도자가 콜 옵션을 판매할 때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 가격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겠지요 .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프리미엄 (웃돈)을 받고 옵션 (권리)를 팔아보는 것입니다 .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매도자는 프리미엄 (웃돈)만 챙기고 씨익 웃는 것이지요 . 반대의 경우인 풋 옵션도 동일합니다 .
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기시에 옵션 가격보다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슬그머니 풋 옵션

주식이 오를때를 가정하여 콜 옵션을 사 놓는 것 (남들보다 싸게 더 살 수 있으니까)입니다 .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든 오르든 아무튼간에 조금이나마 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. 프리미엄을 보험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약간의 보험금으로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.

결국 옵션은 겉으로 보면 주식시장 같지만 실제로는 보험시장이고 , 보험상품이니까 우리가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. 보험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.

? ??? ?? ???.

더 자세히 알지 마세요 .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셔요 . 뭐든지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해보고 싶어지고 , 하게 되면 망합니다 . 특히 옵션은 보험상품이라는 생각만 하시고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. 어렵기도 하거니와 알아봐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. 굳이 알고 싶다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.
"옵션을 파는 매도자는 도박장이고 , 옵션을 사는 매수자는 도박사다 . 이건 도박이다 ."

<참고 >
모든 투자상품들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. 돈 다 날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. 그런데 선물 / 옵션은 다 날리는 것 뿐만 아니라 빚도 질 수 있습니다 .
절대 하지 마세요 . 하지 마세요 .
은행이자보다 이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도가 크다는 뜻 입니다 . 절대로 잊지 마세요 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.
은행이자보다 높은데 "원금보장이 된다 "는 말은 순도 100%의 사기입니다 . 심지어 불법입니다 .

Revision #9
Created 2024-02-13 12:35:36 UTC by Enigma
Updated 2025-06-26 22:46:27 UTC by Enigma